

그리스도를 알고자

빌립보서 3 장 1-21

안녕하십니까! 선교사 리더 수양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윌리엄 목자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알고자” 입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 장, 1 절 부터 21 일절 까지이며, 요절은 10 절, 11 절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의 마음가운데 일어나는 일들과 생각들에 대해 말합니다. 이는 바울이 쓴 가장 개인적인 말씀 중 하나입니다. 성령께서는 바울을 모든 신자들의 본보기로 세우셨는데, 그럼 바울의 마음과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배워보겠습니다.

첫째, 주님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 전체를 읽어 보면 빌립보 교회가 잘못돼 있다는 것을 알게됩니다. 그들에게는 해로운 분열과 불평, 다툼과 개인적 썩뿌리가 많았습니다. 빌립보교인들은 문제가 이사람이나 저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이것이 그들 마음의 문제임을 드러내었습니다.

1 절을 보십시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바울의 권고는 비판적이지 않지만, 그들의 심각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는 빌립보 교회가 마음으로 예수님안에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신부가 신랑을 향한 기쁨과 흥분을 잃어버린 것처럼, 빌립보교인들은 주님안에서 기뻐하지 않았고 불행하고, 비생산적이며, 고장난 장난감 신부와 같이 되었습니다. 다시말해서, 빌립보교인들은 그들을 주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만들 악한 영향들에 노출되었습니다.

2-3 절을 보십시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사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바울 당시에 숨어서 교회를 노리는 개들은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인 것처럼 굴었지만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행악하는 자”들로 규정했는데, 이는 그들이 사람들의 믿음을 그리스도로부터 떼어내서 자기 자신의 인간적 노력으로 향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사기꾼 적이었지만, 그리스도안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사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유대주의자들은 할례를 행했지만, 그것에는 능력이 없었고, 몸의 일부를 잘라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안에는 진정한 할례가 있으니, 우리의 낡고 죄악된 자아를 잘라내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자아와 새 방향, 새 목적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안에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진정한 힘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믿는자들은 그리스도안에서 사랑해야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야합니다. 아마도 빌립보교인들은 그리스도안에 있는 엄청난 부를 온전히 이해하거나 알지 못했기에 주안에서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돕습니다.

둘째, 예수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의 엄청난 가치

빌립보교인들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 수 있도록, 바울은 잊혀졌던 자신의 인생 성취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4 절 후반부에서 6 절까지를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팔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도 한때는 세상에서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예수님을 알게 된 후 자신이 이룬 것들을 포기하였습니다.

7 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얼마나 극심한 관점의 변화입니까! 한때 자신의 유익으로 여기던 것들을 이제 그는 무익한 해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의 생각을 이렇게 180 도로 바꾸었을까요? 8 절을 보십시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생각의 전환은 바울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게 되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영어로 “surpassing(뛰어난)” 이란 단어는: 예외적으로 비교할 수 없고 두드러지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가치는 너무나 뛰어나서 (고상함) 그와 비교할 때 모든 것들을 “쓰레기”와

같이 만들어 버립니다. 바울의 가치관은 저희에게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의 비유를 생각나게 하는데,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값어치를 발견했을 때,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기쁨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중에, 저는 제가 바울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에 대한 확신이 부족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것을 매우 높게 보았지만, 모든 것을 잃거나 쓰레기로 여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저는 바울이 “해”로 여겼던 많은 것들을 “유익”으로 보았습니다. 예를들어서, 제가 믿음을 시작했을 때는 완전히 해매는 성경학생이었지만, 예수님때문에 저는 훈련받고 열심히 일하게 되었습니다.

24 살 때, 저는 아름다운 아내와 꿈같은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열심히 일해서 6 명의 건강한 아이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저는 대학 교수의 직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속 열심히 일했고 구글에서 정식 사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재산도 조금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체육관에 다니며 육체적인 건강을 얻었습니다. 저는 가족을 위한 집을 설계하고 지어서 우리집도 얻었습니다. 물론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하며 캠퍼스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과 교회를 섬겼습니다. 저는 LA UBF 안에서 좋은 평판과 중요한 직책들을 얻었습니다. 20 년이 지나 저는 이제 자신의 성취들로 채워진 이력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유익”으로 보았는데, 이는 이들이 이루기 쉽지 않을 뿐더러 실제로 대부분은 제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말씀에 비추어 제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저의 성취들은 그 빛이 바랬습니다. 저는 제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방향없이 그저 제가 정한 유익들을 이루고자 살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었다면, 아마도 저는 삶을 조금 다르게 살았거나 아니면 전혀 다르게 살았을 것입니다. 저는 특히 결혼 생활을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관해서는 완전히 잘못 생각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는 아내를 먹여 살리고 아내에게 동화 속 결혼처럼 느끼게 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이런 접근 방식은 결국 결혼 생활에서 세상 즐거움과 성적 만족만 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즐겁고 신나는 시간을 많이 갖고자 최선을 다했는데, 아내는 반항적이 되고 감사가 없어졌고, 처음으로 저는 순간 순간 미움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3 장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저는 결혼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임을 제가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가 그를 알고자 결혼을 사용하지 않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가 눈물로 회개케하시고 결혼의 방향을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되돌려 주셨습니다. 저는 제 사랑하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결혼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놀라운 비밀을 알아가는데 써야할 것 같아요. 함께 열심히 예수님을

구합니다.” 그녀는 얼굴이 밝아지더니 어떤 데이트나 멋진 휴가 때 보다 더 신나 보였습니다. 저희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 예수님께서 저희의 결혼을 다시 본래대로 그를 알고자 하는 방향으로 돌려주시도록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만에, 저희는 변했습니다. 제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 듯, 그녀도 제게 순종하며 더이상 제게 반항적이거나 무례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저도, 아내를 더이상 저 자신을 위해 쓰기 보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녀를 사랑하려는 진정한 남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서는 지난 19 년 결혼 생활 동안, 저희가 점점 예수님을 덜 의지해왔음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초창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위해 기도했지만, 저희가 재물, 경험, 지식, 그리고 능력을 얻은 후에는 그리스도를 점점 덜 의지했습니다. 저희는 과거 연약했지만, 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기도했기에 또한 강건했던, 그때로 돌아가고자 기도했습니다. 저희 결혼의 목표가 다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되었을 때, 저희 둘은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저희 결혼은 4 점에서 10 점 만점 그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리스도께서는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고자 노력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때 “해” 가 될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에 가서 일할 때, 이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입니다. 가정을 돌보는 것도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것도 그리스도를 알고자 함입니다. 모든 관계성, 모든 헌신, 계획 그리고 목적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위해 바칩니다. 무엇이든지 저와 다른 이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데 도움을 주지 않으면, 이는 쓰레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앞에서, 그런 삶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바울의 관점에 동의하는데, 왜냐하면 인생의 마지막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셋째,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한가지 열정으로, 바울은 그가 어떻게 그 목적을 위해 살았는가 말합니다.

10 절과 11 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겿세마네 동산에서의 고난, 산헤드린 회당에서의 재판,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무덤에서 부활하심을 일컬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서는 방황하는

죄인들을 구원하기위한 희생적인 사랑에 대해 열정적이셨고,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능력에 대해 열정적이셨습니다. 바울은 그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목적에 집중할 때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저희가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추구할 때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에서 최고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알고자 한다면, 예수님처럼 살아야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처럼 살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희생적인 삶을 사는 것은 매우 큰 댓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고난의 반대편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사람은 누구나 또한 그의 속 깊은 곳에서 역사하시는 생명주시는 능력을 체험할 것입니다. 육체와 영혼에 활력을 불어넣고, 되살리며, 새롭게하며 계속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도우시는 그 능력입니다. 우리는 희생을 값아야 할 고지서로 보기 보다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능력을 알 수 있는 수단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2 절에서 14 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그리스도와와의 결합으로 한 몸이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붙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저희를 붙드신대로 그와 하나되고자 함입니다.

15 절에서 17 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

인생에 대한 바울의 관점이 너무 극단적입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기거나, 심지어 쓰레기로 간주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는 바울처럼 목회자나 선교사들을 위한 이상일 뿐입니까? 아니요! 바울은 썼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찌니” 바울의 삶에 대한 관점들,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소원, 그리고 희생제물로 바쳐진 그의 인생은 온전히 이룬 자들의 관점입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부연합니다, “형제 자매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속 소원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한 나아가야 할 본이 됩니다. 성령께서는 바울을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모범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안에서 건강한 발전하고 성숙하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인생의 유일한 유익으로 여겼던 바울의 절대적인 관점을 우리가 취하는 것입니다.

18 절에서 19 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음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유대주의자들처럼,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의 이루신 것들에 절대적 신뢰를 강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얻거나 아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끄는 고난이나 희생에 대해서 결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자들은 자신들을 기독교인이라 칭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세상 것들에 맞추어졌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저희의 숙명은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리스도안에서 저희의 미래는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 세상에서 준비하고 좋은 일을 하며 우리의 삶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유일한 유익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가 희생하며 그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자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며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붙들시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우사 방황하는 대학생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계속해서 희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학생들에게 보이기 위해 희생하기를, 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영광의 예수님을 다시 뵈 때까지 저희 삶을 계속해서 부어 드릴 수 있도록 새롭게 하시고 되살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한마디: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